

그리스도인에 행실의 기준

A CHRISTIAN'S CODE OF CONDUCT

1.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재능을 발휘 시킬수 있는 대로 노력하여, 내 마음과 목숨과 (힘)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그가 주신 선물로 인정하고, 그것을 그의 뜻에따라 사용하는 것이 내가 그에게 드리는 선물로 생각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의 뜻과 내 생활의 인도길을 찾고, 그를 숭배하고 그를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는다. 나는 모든 우상에서 떠 나고, 모든 그릇된 "신들"에게서 나오는 신성한 것들이 내유의를 채워 주겠다는 일들로 인하여 음원하신 하나님 과 내주 예수그리 스토에 각오를 절대로 굽히지 않겠다.
2. 내 이웃을 내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이웃을 위한 내 언어와 행위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나는 신중히 여긴다. 나는 나의 "이웃"을 지리적으로나, 가족적으로나, 우선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어느 때와 장소를 따라 나와 가깝게 있는 자를 내 이웃이라고 여긴다. 나는 사람들을 속담해서 판단하거나, 종교가 다르다고, 인종이 다르다고, 국적이 다르다고 또는 성이 다르다는 등등으로 사람을 미리 판단하는 것을 피하고, 각자에 그의 언어와 행위로써 판단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각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에 이르는 진리(사실)의 말씀을 아는길로 인도 하겠다. 나는 아무조록 성실히 살므로 누구든지 내 생활을 모범삼아 따르는 자 들은, 그들 중에 평강과 선한일들로 가득차게 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3. 나는 하나님과 마귀사이에 영적인 전투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알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고임에 넘어가지 않을뿐더러 내 이웃도 넘어가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 나는 사탄이 기록된 하나님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부정 수단 부리는 것을 대적하겠다. 만일 내가 어쩔때가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그의 뜻아래 있는 것 을 발견하면," 내가 모든 힘을 다하여 "탈취"할 것이고 다른 자들도 이차같이 도울 것이다. 나는 무엇이든지 자기만 중심으로 만들게하는 것과 보람없는 일들, 특히 파괴적인 회색계를 물결, 이러한 것들에게 봉들려서 노예가 되는 모든 중독에서 피할 것이다.
4. 나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그리스도와 나 사이의 관계를 깊이 쌓기위하여 행실로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곧 경건한 특징과 마음 가진으로 나의 생활을 다스릴 것인데, 특히 내게 가장 증거하기 힘든 특징에게 주목하겠다. 나는 내에 "죄의 성품"을 쫓아 죄를 짓지않을 뿐 더러, 그것을가지고 나의 부당한 행위 에 합리시키지 않고, 그 대신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말씀을 순종할 것이다.
5. 나는 하나님과 예수그리스도의 권세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는 모든 경건한 권세들에게 순종하는데, 한편 어떤 경건치 못한 부정한 권세로 내가 압제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나는 이러한 권세들을 하나님말씀으로 교육받은 내 양심으로써 그 권세의 어떠한 한계에 따라서 순종 하겠다. 나는 시기, 망향, 그 리고 내 뜻대로만 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성결수 있을자 하는 기회를 찾고 지배만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 만일 나에게 권세가 있다면, 내가 그 권세로 섬김에 쓰여 그 권세로 왕노릇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모든 교제가 경건함으로 용기를 얻고, 평화와 화목함을 이루는 길을 선택하여 실행하겠다.
6. 나는 결혼했든지 결혼하지 않았든지 간에 성관계에 대하여 일질 성결한 태도를 가질것이며, 성관계와 거기에대한 마음가짐은 필실히 영적임으로 결혼한 사이든지 불결한 사이든지 한 몸으로 합치게 하는 큰 역할을 하는 것을 인정한다. 나는 pornography-프로노, 호색을 피하고 모든 불의한 성관계들을 피하는 것은 하나님께 시 성관계 맺은 결혼한 사이를 위해서 정오신것, 곧 그의 신하심과 사람 사랑하심의 증거에 의미를 무너뜨리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7. 나는 남에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파괴적인 소문), 사람을 직접 경험하면서 사랑안에서 사실을 말하겠으며, 듣는 이로 덕을 세우게 노력하겠다. 나의 언어가 은혜 를 끼치게 하고 듣는 사람들이 선한 평가를 받고 살수 있도록 하겠다. 나는 사람 인격을 알살 하거나 혹은 사람의 마음을 경건치 못한 판단을 하지 않겠다. 만일 누가 나에게 잘못을 지적했을 때는 마태복음 18:15-17절에서 말씀하신대로 실행하는데, 그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기 전에 먼저 나에게 잘못을 지적온 자에게 가서 권고하겠다(개인 상담 해놓고).
8. 나는 남의 소유를 탐하거나 훔치지 않겠으며, 내손으로 부지런히 일하여 남을 구제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나는 누가 잃어버린 물건을 보면 힘 달는데 까지 노력 해서 그 물건에 주인을 찾아 돌려 주겠다. 그리고 되도록 빌리는 사람 보다 빌려주는 사람이 되겠다. 만일 남에 물건을 빌렸으면, 돌려 줄때는 빌릴때보다 더 좋은 상태로 돌려주거나 그렇지 못한 상태거든 새것으로 물어 주겠다. 나는 돈에 귀독과 보존을 위하여 노예가 되지 않고, 그것을 복되고 의미있게 쓰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모자란 것을 보충해 주겠다.
9. 나에게 잘못을 지적온 사람에게 보복할 틈을 찾지 않겠으며, 오히려 하나님말씀을 따라 그사람을 용서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구할것이다. 나는 내가 제물고자 하는 일에 소견이 좁고 융통한 마음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은 다 거절 하겠다. 나는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짓는 것이 악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혹시 나도 누굴 몹시 미워서 비판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겠다. 나는 먼저 내 죄는 고쳐지 않고 변명스럽게 다른 사람의 죄부터 고쳐려고 하는 것 보다, 내 생활에 있는 내 죄의 뿌리를 발견하여 저항하는 것이 더큰 문제라고 인정한다 (쉽게 말해서 내 죄가 남의 죄보다 더 고쳐지 힘든 것을 알고 있음).
10. 나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찾아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주도록 노력하겠다. 그러나 특히 그리스도인의 가족에게 할 것 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것과 같이 그들도 나와같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힘을 다해서 그들과 협력하여 우리의 공 통 적대자와 싸우겠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웃입혀주신 것으로 하겠다.